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의 요건과 <상황>의 ㉠ ~ ㉤를 옳게 짝지은 것은?

민법 제0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A) ~ (E)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A)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이며, 과실이란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B)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 (C)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D)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E)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상 황> —

甲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乙의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을 치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 ㉡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을 입은 것, ㉤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 (A) ~ (E) 요건을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① (A) - ㉠
② (B) - ㉡
③ (C) - ㉢
④ (D) - ㉣
⑤ (E) - ㉤

문 1. 정답 ②

예설

- (1) <상황>의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A) ~ (E) 요건을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 ~ (E) 다섯 가지 요건과 <상황>의 ㉠ ~ ㉤를 각각 짝지어야 한다. 甲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에게 부상을 입힌 상황이므로 가해자는 甲, 피해자는 乙이다.
- (2) (A) - ㉣ :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가해자(甲)에게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
- (3) (B) - ㉠ :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은 피해자(乙)의 손해(부상)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 (4) (C) - ㉡ :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 (5) (D) - ㉢ :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을 입은 것’은 피해자(乙)에게 손해(부상을 입은 것)가 발생한 것이다.
- (6) (E) - ㉤ :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은 가해행위(甲이 차량으로 친 행위)와 손해발생(乙이 부상을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7)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건		상황	
(A)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B)	가해행위	㉠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
(C)	가해행위가 위법	㉡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D)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을 입은 것
(E)	인과 관계	㉤	甲의 차량이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은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

[빠른 풀이]

- (1) (A)와 ㉣, (C)와 ㉡처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짝지어 간다.
- (2) (A) ~ (E)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고 하였으므로 (A) ~ (E) 요건과 <상황>의 ㉠ ~ ㉤가 1대 1로 대응되어야 한다. 따라서 (C)와 ㉡가 짝지어질 경우 선택지 ③과 ⑤를 바로 소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지를 최대한 소거하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참 고]

법조문을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법조문과 상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사용되는지를 주목한다. 예를 들어 (A)의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의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C)의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의 ‘도로교통법 위반’, (D)의 ‘손해’는 ㉢의 ‘부상’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빠르게 짝지을 수 있다.

※ 관련 기출 : 20 5급(나) 6번, 17 5급(가) 24번, 14 5급(A) 26번, 13 5급(인) 24번, 10 행외(선) 6번, 07 행외(무) 2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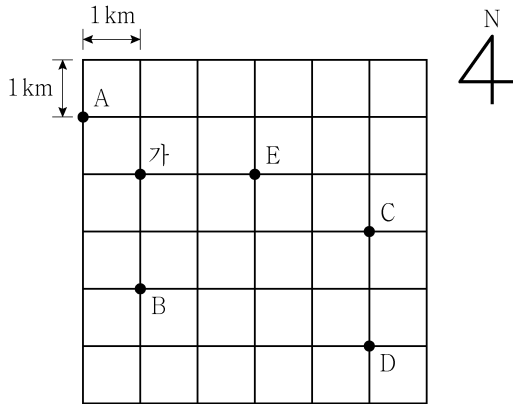
※ 관련 조문 : 민법 제750조

문 2. 다음 글과 <○○시 지도>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시는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즉시 발송하고 있다. X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Y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발송한다. 단,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에게는 지진발생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8월 26일 14시 정각 '가'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A ~ E 중 2명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5분 후 '나'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C와 D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다시 5분 후 '나'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A ~ E 중에서 지진발생문자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은 1명뿐이다.

<○○시 지도>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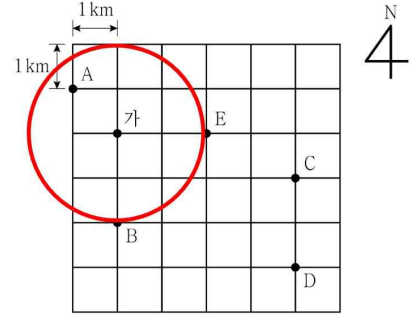
- | | | |
|---------|---------|---------|
| ㄱ. A | ㄴ. B | ㄷ. E |
| ㄹ. A와 E | ㅁ. B와 E | ㅂ. C와 E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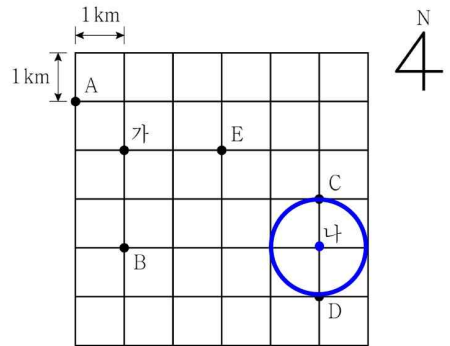
문 2. 정답 ④

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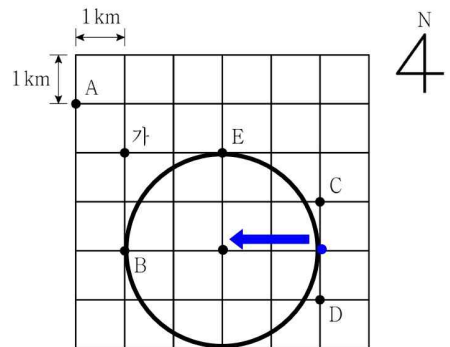
- (1) 8월 26일 14시 정각 '가'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발송하였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A, B, E가 발송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 중 2명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으므로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은 A, B, E 중 한 명이다.



- (2) 5분 후 '나'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C와 D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고 하였다. 지도상에 '나'지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나'지점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X등급 지진의 경우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발송한다. C와 D가 동시에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발생지점은 아래 그림에 표시한 '나'지점뿐이다.



- (3) 다시 5분 후 '나'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발생문자를 받게 되는 반경 2km의 영역을 지도 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진발생문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은 B와 E이다.



- (4) (1)에서 A, B, E 중 지진발생문자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은 달라진다. 만약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이 A라면, B와 E가 지진발생문자를 받았을 것이다. 만약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이 B라면, E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이 E라면, B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각각 <보기>에서 ㅁ, ㄷ, 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ㄴ, ㄷ, ㅁ이다.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 받은 밭의 총 마지기 수는?

조선시대의 분재(分財)는 시기가 재주(財主)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별급(別給)은 재주 생전에 과거급제, 생일, 혼인, 출산, 감사표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재였으며, 깃급(衿給)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재주가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하는 일반적인 분재였다.

재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화회(和會)라고 했다. 화회는 재주의 3년 상(喪)을 마친 후에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가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는데, 친자녀 간 균분 분재를 원칙으로 하나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재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양자녀에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장남에게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분재되었다. 깃급과 화회 대상 재산에는 별급으로 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 분재: 재산을 나누어 줌

※ 재주: 분재되는 재산의 주인

<상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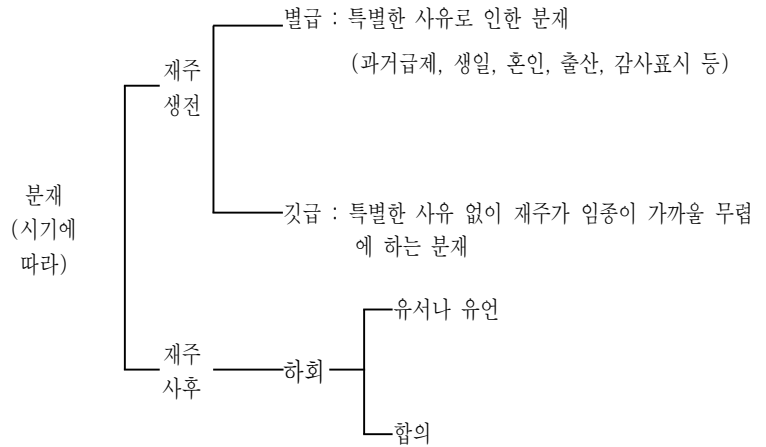
-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재주 甲의 분재 대상자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며, 이 중 딸 1명은 양녀이고 나머지 3명은 친자녀이다.
- 甲이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에게 밭 20마지기를 준 것과 두 딸이 시집갈 때 각각 밭 10마지기씩을 준 것이 전부였다.
- 화회 대상 재산은 밭 100마지기이며 화회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며,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

- ① 30
② 35
③ 40
④ 45
⑤ 50

문 3. 정답 ⑤

해설

(1) 조선시대의 분재는 별급, 깃급, 화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甲은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주가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하는 분재인 깃급은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별급'과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화회'만 고려하면 된다.

(3) <상황 2>에서 甲이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에게 밭 20마지기를 준 것과 두 딸이 시집갈 때 각각 밭 10마지기씩을 준 것이 전부였다고 하였다.

(4) <상황 3>에서 화회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다고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재되었고, 이때에도 양자녀에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5) <상황 4>에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므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은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의 5분의 6을 분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고 하였다.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을 x 라 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마지기)

자녀	아들1 (과거 급제)	아들2	딸1	딸2 (양녀)	합계
별급	20	—	10	10	40
화회	$\frac{6}{5}x$	x	x	$\frac{4}{5}x$	100

(6) (5)의 <표>에서 $\frac{6}{5}x + x + x + \frac{4}{5}x = 100$ 이므로 $4x = 100$, $x = 25$ 이다. 따라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화회를 통해 분재 받은 밭은 $25 \times \frac{6}{5} = 30$ 마지기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마지기)

자녀	아들1 (과거 급제)	아들2	딸1	딸2 (양녀)	합계
별급	20	—	10	10	40
화회	30	25	25	20	100
분재	50	25	35	30	140

(7)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별급으로 받은 밭은 20마지기이고, 화회를 통해 받은 밭은 30마지기이므로, 분재 받은 밭의 총 마지기 수는 50마지기이다.

※ 관련 기출 : 16 5급(4) 3번, 15 5급(인) 11번, 22번, 13 외교(인) 30번, 11 5급(선) 39번, 40번, 08 행외(창) 10번, 07 행외(무) 27번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행을 좋아하는 甲은 ○○항공의 마일리지를 최대한 많이 적립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항공의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A, B 두 신용카드 중 하나의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각 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A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

- 1) 이용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2)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제공함.
- 3)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2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3마일리지를 제공함.

<B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

- 1) 이용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2)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3)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7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3마일리지를, 7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마일리지 제공 시 이용금액 1,000원 미만은 버림

—<보 기>—

- ㄱ.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A신용카드가 B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 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A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ㄷ.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B신용카드가 A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문 4. 정답 ②

ㄱ : (×)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20만 원인 경우, 각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아래 <표>와 같다. A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1,400, B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2,200으로 B신용카드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 이용금액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초과 (20만 원)	총 마일리지
A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1,000$	$\frac{2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2 = 400$	1,400
B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2 = 2,000$	$\frac{2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200$	2,200

ㄴ : (○)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인 경우, 각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A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 이용금액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총 마일리지
A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1,000$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2 = 2,000$	3,000
B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2 = 2,000$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1,000$	3,000

ㄷ : (×)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B신용카드가 A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용금액이 월 300만 원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A신용카드가 B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신용카드 \ 이용금액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200만 원 초과 (100만 원)	총 마일리지
A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1,000$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2 = 2,000$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3 = 3,000$	6,000

신용카드 \ 이용금액	70만 원 이하 (70만 원)	70만 원 초과 (230만 원)	총 마일리지
B	$\frac{7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3 = 2,100$	$\frac{23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2,300$	4,400

[빠른 풀이]

ㄱ : (×)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20만 원일 때에는 A신용카드와 B신용카드의 1,000원 당 마일리지가 100만 원 이하 구간과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각각 교차되어 있다. 이때 아래 <표>에서 ㉠이 ㉡보다 크기 때문에 ㉠쪽 제공 마일리지가 더 큰 B신용카드의 마일리지가 A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마일리지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 이용금액	100만 원 이하 ㉠ : 100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 20만 원
A	1,000원 당 1마일리지	1,000원 당 2마일리지
B	1,000원 당 2마일리지	1,000원 당 1마일리지

ㄴ : (○) 동일한 원리로 ㉠과 ㉡의 크기가 같게 되는 상황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인 경우에는 두 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같아짐을 알 수 있다.

ㄷ : (×)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월 (200만 원 + α)라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까지의 마일리지를 계산하면, A신용카드의 마일리지는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frac{10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2) = 3,000$ 이고, B신용카드의 마일리지는 $(\frac{7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3) + (\frac{130\text{만 원}}{1,000\text{원}} \times 1) = 3,400$ 이 된다. 이때 이용금액 월 200만 원 초과 영역에서는 A신용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조건이 B신용카드보다 좋기 때문에 α가 커질수록 A신용카드가 B신용카드보다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B신용카드가 A신용카드보다 언제나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더 빠른 풀이]

ㄴ : (○) 두 신용카드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 2)에서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영역에서는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신용카드의 마일리지가 같아지는 이용금액은 월 200만 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ㄴ>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ㄱ> 또한 월 200만 원 이하에서는 1,000원 당 마일리지가 더 큰 B신용카드의 마일리지가 더 많이 제공됨을 예상할 수 있다.

ㄷ : (×)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A신용카드는 구간별로 1, 2, 3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데 반해 B신용카드는 3, 1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확한 마일리지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용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A신용카드에서 3마일리지를 제공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A신용카드가 B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상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관련 기출 : 20 5급(나) 7번, 19 5급(가) 26번, 18 5급(나) 32번, 13 5급(인) 9번, 11 5급(선) 14번